

베트남의 2001~2005년 경제개발계획 추진성과와 과제¹⁾

안응호 · 지식경제실 수석조사역

- | | |
|-------------------|----------|
| I. 머리말 | IV. 향후과제 |
| II. 추진성과 | V. 맺음말 |
| III. 경제개발 추진의 문제점 | |

I. 머리말

베트남은 총면적 33만 km², 인구 8,260만 명, 국내총생산(GDP) 450억 달러, 1인당 GDP 540달러의 저개발 빈곤국이다²⁾. 베트남은 오랜 세월을 걸친 조국통일전쟁과 그 후유증으로 통일이후에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고, 경제의 비효율이 여러 분야에서 드러났다. 그러나 1986년 제6차 베트남 전국 공산당대회에서 대내개혁과 대외개방을 근간으로 하는 도이머이정책(刷新政策)을 채택한 이후 개방을 통한 외국자본 및 기술도입으로 국내투자를 확대하고 수출확대를 통한 대외지향적 경제성장정책을 추진하여 온 결과, 최근에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과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고 있다. 이러

한 도이머이정책의 실천계획 중 하나가 10개년 사회경제개발전략이며, 베트남 정부는 이를 다시 5개년 계획으로 나누어 보다 구체적인 실행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10개년 개발계획은 지난 2001년 제9차 전국 공산당대회에서 채택되었으며, 베트남정부는 현재 2001~2005년을 시행기간으로 하는 제7차 사회경제개발계획(이하 경제개발계획)을 베트남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 중으로, 이에 대한 잠정적인 평가는 매우 긍정적이다.

II. 추진성과

1. 2001~2005년 사회경제개발계획 목표

- 1) 본고는 베트남 정부가 2004년 12월 하노이에서 개최된 원조국회의에서 발표한 “Implementation of Socio-Economic Objectives During the Period 2001-2005 and Prerequisites for the New Period 2006-2010” 을 중심으로 작성한 것임.
2) 2004년 기준, EIU 추정치.

2001~2005년간의 제7차 경제개발계획 기본목표는 ① 높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률, ② 경제 및 노동구조의 개조, ③ 산업화와 근대화, ④ 경제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 ⑤ 무역 및 투자기회의 확대, ⑥ 교육, 훈련, 과학 및 기술 분야의 개혁과 인적자원 이용 극대화, ⑦ 고용 확대, ⑧ 빈곤 감축, ⑨ 사회악 구축, ⑩ 사회·경제 인프라 강화, ⑪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 개발, ⑫ 사회·정치적 안정 유지, ⑬ 국가주권과 독립, 영토 수호이다. 구체적인 주요 거시경제목표를 보면 2005년까지 GDP규모를 1995년의 2배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기본 목표아래 5년간 GDP성장률을 연평균 7.5%로 유지하며, 2005년까지는 농업·수산업 등 1차 산업의 GDP 비중을 2000년의 24.5%에서 21~22%로 낮추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외국인투자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외

자유치에 노력하여 왔으며, 투자목표는 단기보다는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산업화 근대화를 위한 경제개조에 집중되었다. 이에 따라 산업 생산능력이 확충되었고 경제·사회 인프라가 크게 개선되었다.

국제적 환경 또한 베트남에 있어서는 도전과 기회였다. 베트남은 1994년 미국의 대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이후, 1995년 ASEAN, 1998년 APEC에 각각 가입하였고, 2001년에는 미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베트남은 이미 무역, 투자, 과학, 문화, 관광 등과 관련된 다양한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포럼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발표하고 국제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WTO 가입을 목표로 국내법을 개정 중이며, 가입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도출에 노력하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 이후의 국제정세

〈표 1〉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거시경제목표 및 실적

단위: %

목 표	기간 중 목표치 (평균)	기간 중 실적치 (평균)
1) GDP 성장률	7.5	7.5
2) 농업·수산업·임업 성장률	4.3	3.6
3) 산업·건설업 성장률	10.8	10.3
4) 서비스 성장률	6.2	7.0
5) 수출성장률	14~16	16.2
6) 경제구조		
- 농업·수산업·임업	21~22	20.5 ^{주)}
- 산업·건설업	38~39	41.0 ^{주)}
- 서비스	41~42	38.5 ^{주)}
7) 대GDP 투자비율	35.9	37.0 ^{주)}

주: 2005년 기준.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MPI),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DSI)

또한 대외무역 확대를 통한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베트남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고, 그 이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SARS 및 조류독감의 발병은 베트남의 식품 및 가공제품에 큰 타격을 주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베트남은 5개년 경제개발계획을 꾸준히 추진, 괄목할 만한 성과를 달성했다.

계획기간 중 주요 경제지표의 목표와 실적은 <표 1>과 같다.

2. 주요 성과

가. 경제적 성과

(1) 경제성장

베트남 경제는 계획기간 동안 이전의 제6차 계획기간의 연평균 성장률 6.9%를 상회하는 7.5%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에 아시아에서 베트남보다 더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한 국가는 8.2% 성장한 중국 뿐이었다.³⁾ 부문별 경제성장률⁴⁾을 보면 농업·임업·수산업(이하 농·수산업)의 1차 산업이 연평균 3.6% 성장하였고, 산업·건설부문(이하 산업)이 10.3%, 그리고 서비스부문이 7.0% 성장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성과로 2005년의 GDP는 500억 달러를 초과하고, 1인당 국민소득도 약 600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업부문은 목표치 연평균 4.3% 성장보다는 다소 낮은 성장에 머물렀으나, 질적으로는 그 구성에 있어 많은 개선이 있었다. 부문별 성과를 총액기준으로 보면, 농

업은 연평균 3.7%, 임업은 2.5%, 수산업은 11.8%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수산물은 베트남의 주요 수출상품이 되었다. 세부적인 구성에 있어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축산 및 양식분야의 성장이 활발하였다. 농업생산 중 축산비율이 20.2%를 차지하였고, 양식업의 확산으로 수산업이 농·수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21.3%로 증가하였다. 임업에 있어서도 과거의 정부주도에서 민간 및 합작기업의 참여 증대로 산림비율이 2000년의 33.7%에서 2005년에는 39.5%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농촌에 대한 인프라 투자 확대와 더불어 탈농업화·산업화가 진전되었다. 인프라투자는 특히 도로, 관개, 전력 및 상하수도, 학교, 병원 및 시장현대화에 대한 투자에 집중되었다. 수공업 수입이 농촌수입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서비스부문도 약 15% 정도를 차지하는 등 농촌 생활수준이 현저하게 개선되었다. 그 결과 농촌경제 내에서 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6% 포인트 증가하였고, 서비스부문도 4%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농·수산업 본연의 경제활동 비중은 10% 포인트 감소하였다.

농·수산업도 꾸준한 성장을 시현하였지만, 베트남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GDP의 37%정도를 차지하는 제조업·건설 등 산업부문의 성장이다. 동 기간 동안 산업생산은 총액기준으로 연평균 15.4%(부가가치 기준으로는 10.2%) 성장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목표치를 2.3% 포인트 정도 상회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문의 성장은 지배구

3) 같은 기간 동안 태국 5.4%,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4.5%, 한국 4.4% 성장하였음.

4) 부가가치 기준.

조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어, 국영 기업부문의 성장률은 연평균 11%, 민간부문은 19%, 외국인투자부문은 19.5%의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국영부문 합리화와 효율개선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또한, 민간부문의 활성화와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의 베트남시장 진출은 규모, 기술수준, 상품의 다양성 및 품질 등 많은 측면에서 산업의 다변화를 가져왔다. 산업생산의 증가는 석탄, 시멘트, 철강 등 주요 원자재 및 자본재에 대한 수요증가를 가져왔고, 소득의 증가는 소비재수요를 증가시켰다.

서비스부문은 베트남 경제의 40%정도를 차지하는 주요한 부문이다. 서비스부문 또한 산업의 발달과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의 기호 변화에 따라 재편되었다. 서비스부문은 총액기준으로 연평균 7.5%의 성장을 기록, 목표를 달성하였다.

도·소매업이 크게 활성화되어 소매업은 연평균 13%의 성장을 보였다. 관광 또한 급속한 성장을 기록하여 연간 베트남 방문객수는 2000년의 210만 명에서 2005년에는 32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우편·통신 시스템이 급속히 성장 발달하였고, 통신망 현대화가 진행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서비스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가격도 많이 하락하였다. 이외에도 금융, 보험, 회계, IT, 기술, 의료서비스, 교육, 스포츠 등 모든 부문이 이전의 개발계획기간보다 크게 발전된 것으로 평가된다.

(2) 산업화 및 현대화

계획기간동안 베트남은 산업화·현대화를 위한 근본적인 경제개조를 추진하였다. 이

에 따라 GDP에서 차지하는 농·수산업의 비중이 2000년의 24.5%에서 2005년에는 20.5%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산업부문의 비중은 2000년 36.7%에서 2005년에는 41%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상대적인 저성장으로 서비스부문의 비중은 전기에 비해서 오히려 38.5%로 감소하였다. 이에 따라 1986년 개혁이 개시된 이래 농·수산업 비중이 38%에서 21%로 반감되었고, 산업부문 비중은 28.9%에서 41%로 높아졌다. 이에 따라 서비스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가 약 35%인데 비해 산업부문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53%에 이르게 되었다.

농·수산업에 있어서도 농업부문의 비중이 총액기준으로 2000년의 80.1%에서 2005년 75%로 낮아지면서, 수산업 비중은 15.6%에서 21%로 높아졌다. 농업부문 내에서도 기존의 벼 중심의 저부가가치 농작물 생산에서 고무나 견과류 등 고부가가치 농산물생산으로 그 중심이 전환되었고, 축산비중도 16.5%에서 19.3%로 증가하였다.

산업내의 구조조정도 활발하였다. 기계수선, 일반 제조업 및 소비재 생산부문에서 기술혁신이 진행되었다. 제조업의 성장이 두드러졌고, 전기, 가스, 상수도, 광업 분야도 꾸준한 성장을 기록, 경제·사회발전에 기여하였다.

서비스부문도 산업과 비즈니스, 소비자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재편되어 발전하였다.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인 은행과 보험의 발전이 두드러졌다. 베트남 정부는 전체 여신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4개 주요 국영은행 중 한 두개를 가까운

〈표 2〉 연도별 소비자 물가상승률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주)}
CPI	0.8%	4%	3%	9.5%	5%

주: 추정치

자료: EIU, Country Report, Vietnam

시일 내에 민영화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제사회개발계획의 추진과 함께, 경제특구의 설립도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최근에도 새로운 경제특구가 설립되고 있으며, 특히 보세지역의 경제특구나 산업단지가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어 지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제9차 전국공산당회의의 3차 회의 의결에 따라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 SOE)을 포함한 정부경제부문(state economic sector)의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데, 다양한 인센티브제도로 인하여 민간경제부문의 성장률이 정부경제부문을 능가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경제 안정

계획기간동안 물가 및 경상수지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 변수가 안정세를 기록하였다. 우선 물가를 보면 소비자물가지수(CPI)는 5년간 연평균 4.5% 상승에 그쳐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 등의 외부적 요인에 의하여 평균물가상승률이 높아졌으나, 2003년까지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로

물가상승률이 낮았다.⁵⁾

소비수준은 연평균 6.2%의 꾸준한 성장을 기록,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을 가져왔다. 저축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투자를 위한 재원을 제공하였다.

정부재정을 보면, 재정수입은 매년 15% 정도 증가하였고, 평균적으로 GDP의 23% 수준을 유지하였다.⁶⁾ 국내경제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안정적 세수확보가 가능한 주요 국내산업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되었다. 재정지출은 세수보다 약간 낮은 연평균 14.9%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GDP의 28% 수준을 유지하였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는 연평균 4.9% 수준을 유지하였고, 부족한 재원은 공적개발원조(ODA)와 차입으로 충당되었다. 재정지출의 30.2%가 개발투자에 투입되었다.⁷⁾

총투자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총투자/GDP 비율은 34%였으나, 2005년에는 36.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계획기간 5년 동안 총투자규모는 목표치를 16% 초과하였다. 투자의 구성도 변화였다. 정부투자 및 정부보조금을 받는 투자의 비중이 감소하고, 민간부문 및 해외투자비율이 증가하였다.

5) 2001년 0.8%, 2002년 4%, 2003년 3%, 2004년 9.5%, 2005년 5% 예상됨.

6) 계획기간 중 목표치는 20~21%.

7) 계획기간 중 목표치는 25~26%.

(4) 대외경제의 개선

베트남의 정치 사회적 안정에 기초한 지속적 성장으로 거시경제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베트남은 다양한 대외경제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또한, 베트남의 대외개방 및 협력노력이 계속되면서 ASEAN과의 합의 사항이 순차적으로 이행되고 있으며, WTO 가입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2001~2005년 동안 수출액 총계는 1,09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매년 16.2%의 성장을 기록했다(목표는 14~16%). 주요 수출품목은 원유, 섬유·의류, 수산물, 신발, 컴퓨터 및 전자제품, 쌀로서 2004년의 경우 이들 품목이 전체 수출액의 64.2%를 차지하였다. 이밖에 베트남은 커피, 목재, 석탄, 견과류, 고무 등 다양한 1차 산품을 수출하였다. 계획기간동안 중국, 한국, EU에 대한 수출이 안정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미국과의 무역협정으로 베트남의 수출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2001~2005년 간 수입총액은 1,198억 달러로 연평균 14.3%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동 기간 동안 무역수지는 148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수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연료와 원자재, 그리고 기계류이다. 연료와 원자재 수입 비중은 2000년의 63.2%에서 2005년에는 61%로 감소하였고, 기계류 비중은 30.6%에서 32.6%로 증가하였다. 소비재 수입 비중은 6.2%에서 6.4%로 거의 변화가 없다. 이러한 수입구조는 베트남이 계속되는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서 경제개발에 꼭 필요한 연료, 원자재, 자본재 수입을 제외하고는 수입을 최대한 억제하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2001~2005년간 ODA의 유입 또한 활발

〈표 3〉 주요 대외거래 지표

	2003년	2004년
무역		
수출(백만 달러)	20,149	26,504 ¹⁾
수출의존도(수출액/GDP, %)	51.7	58.9 ¹⁾
수입(백만 달러)	25,256	31,954 ¹⁾
상품수지(백만 달러)	- 5,107	- 5,450 ¹⁾
경상수지(백만 달러)	- 1,809	- 1,355 ¹⁾
환율	15,509	15,746
외환보유액(백만 달러) ²⁾	6,224	6,838
D.S.R.(%)	4.5	3.9

주: 1) 잠정치

2) 금 제외

자료: Statistical Handbook, EIU Country Report

하였다. 동 기간 동안 133억 달러의 원조계약이 체결되었으며⁸⁾, 이중 82억 달러가 지출되었다. 많은 ODA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베트남의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꾸준한 투자환경의 개선으로 해외직접투자(FDI)도 꾸준히 증가하였다. 계획기간 동안 FDI 투자총액은 130억 달러로 목표치를 21% 상회하였다. 동 기간 동안 FDI 경제 기여도는 GDP의 14.1%, 수출 총액(석유·가스 제외)의 25%, 재정수입의 4.9%를 나타냈다. 또한, 동 기간 동안 FDI에 의한 고용창출은 83,000명에 이른다.

나. 사회·문화적 성과

베트남 정부는 경제개발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문화적 이슈에 역점을 두어 개선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개선노력의 중심은 인적자원의 개발과 사회문제의 효율적 대응이었다.

(1) 교육

중등교육 확대와 아동보호, 그리고 취학 전 어린이의 영양개선이 집중적으로 추진되었다. 2005년까지 31개 성에서 중학교까지의 보통교육이 시행되고 있고, 취학률은 8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직업교육의 확대가 괄목할 만 하다. 계획기간 중 직업교육은 연평균 7.4%의 성장을 기록하였고, 15개 이상의 직업학교가 지방 성에 설립되었다.

2005년의 경우 예산의 18%가 교육부문

에 배정되는 등, 교육투자의 증가로 교육 전반에 대한 인프라가 개선되었다. 교육에 대한 투자는 국가재정 뿐 아니라, ODA, 기업, 교육채권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이루어 졌다.

(2) 과학·기술

주로 경제개조와 생산성 향상, 품질 향상 등 경제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응용학문에 중점을 두어 투자가 행해졌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 수용능력이 제고되었고 과학자 및 기술자의 수준이 향상되었다.

농·수산업 분야 연구에 있어서도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위한 농산물과 가축의 품종개량을 위한 투자가 활발하였다.

산업 분야에서도 연구 결과가 생산에 직접 투입되었고,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하여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러한 결과 수출에 있어 컴퓨터, 전자 등의 하이테크 제품의 비중이 높고 수입대체효과가 나타났다.

(3) 사회·문화

사회·문화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우선 기아해소와 빈곤감축을 위한 노력이 상당한 결실을 맺었고, 빈곤층이 기본 사회서비스 혜택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일반 국민들과의 대화채널이 개선되었고, 보통교육수준이 개선되었으며, 직업이 창출되고 소득원이 다양화되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었다. 지방정부 단위에서도 기아해소 및 빈곤감축을 위한 제반조치가 시행되었고, 빈곤감축 및 직업창

8) 유상원조 103억 달러, 무상원조 30억 달러.

출을 위한 노력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이 큰 역할을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약 30만 가구가 빈곤을 탈출하여 2005년 말에는 빈곤가구수가 전체의 7%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늘 우선시되었다. 이를 위하여 노동법과 소득세법이 개정되었고, 해외투자기업을 포함하여 기업들의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직원교육지원 등 제 조치가 시행되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5년간 750만개의 새 일자리가 창출되었고, 고용구조도 개선되었다. 즉, 2000년 농·수산업 종사자가 68.2%이었으나, 2005년에는 이 비율이 57%로 감소하였고, 산업고용비율도 12.1%에서 18%로 증가하였다. 서비스 부문 고용비율도 19.7%에서 25%로 증가하였다. 한편, 전체 고용의 30.1%가 숙련공으로, 도시 실업률은 5.4% 정도로 감소하였다.

의료서비스 또한 꾸준히 개선되었다. 지역 의료체계가 통합되고 개선되어 지역 촌단위의 99%에 의료시설이 보급되었고, 이 중 30% 정도는 정부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의약품의 국내 자급률도 약 40%에 달하고 있고, 각급 의료기관은 충분한 재고를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국민보건 개선 노력으로 1세 미만 아동의 90% 이상이 결핵, 소아마비, DPT⁹⁾, MMR¹⁰⁾ 등에 대한 필수 예방접종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전통의학이 통합되어 발전하고 있으며, 지방 성 및 대도시의 70%가

전통의학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사설병원 수도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약품 및 기기의 생산 및 보급체제가 개선되었다.

인구 및 가족계획사업, 산모건강 증진에 있어 많은 개선을 보였다. 5세 이하 아동에 대한 영양개선 노력으로 영양실조 아동 비율이 2000년의 34%에서 2005년에는 24%로 감소하였고, 인구증가율도 1.4% 수준으로 억제되었다. 인구증가율은 2006~10년 기간에 1.1%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국민들의 문화혜택 증진을 위하여 지방정부 단위로의 문화사업을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정보·방송활동이 낙후지역과 저개발 소수민족지역으로 확대되었다. 경제·사회개발 및 환경개발에 있어 문화적 요소가 강조되었다. 또한, 2003년 베트남에서 개최된 제 22차 SEA Game¹¹⁾을 계기로 스포츠 인프라에 대해 많은 투자가 있었다.

은퇴한 연금생활자에 대한 지원이 개선되었다. 특히 국가에 기여한 연금생활자 지원을 위하여 '이들에게 감사하는(rendering thanks)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진행되어 '감사기금'(Fund of Thanks), '고엽체 피해자기금', 'Golden Heart Fund'와 같은 기금들이 설립되었다.

(4) 사회악 근절

마약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지방정부 단위에서 채택되었다. 마약중독자에게는 마약사용을 끊을 수 있는 새로운 재활프로그램이 제공되었고, 노동 및 복지관

9)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10) 유행성이하선염·풍진.

11) ASEAN 10개국과 동티모르가 참가하는 지역 체전으로 2년 마다 개최됨.

〈표 4〉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사회목표 및 실적

주요 목표	단위	기간 중 목표치	기간 중 실적치
1. 인구증가율	%	1.2	1.42
2. 일자리 창출(5년 합계)	백만 개	7.5	7.5
3. 숙련노동자 비율	%	30	30
4. 적령기 중등교육 취학률	%	45	45
5. 빈곤가구 비율	%	10% 이하	7% 이하
6. 5세 이하 영양실조 아동 비율	%	22~25	24
7. 평균 수명	세	70	71.3
8. 농촌지역 상수도 보급률	%	60	62

자료: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MPI),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DSI)

런 부처들 또한 재할자에게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재할을 지원하였다.

생산 확대에 의존한 것으로, 최근의 세계경제의 하이테크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재화의 생산과는 거리가 멀다. 이에 따라 베트남 경제는 효율적인 고부가가치 생산체제로의 전환이 과제이다. 또한, 여전히 높은 국영기업 비율과 이에 따른 공공부문의 투자 및 보조금 집중은 민간부문을 상대적으로 위축하며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있다.

Ⅲ. 경제개발 추진의 문제점

1. 성장의 질

베트남경제는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7.5%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은 낮은 기술을 이용하고 많은 자원을 소모하는 저효율의 전통적 분야의

베트남 산업은 일반적으로 아직도 매우 낮은 생산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낮은 노동생산성과 기술부족에도 기인하나 국영기업을 포함 공공정책의 투명성 부족, 낮은 정보공개 수준 등으로 행정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효율이 떨어지는 국

〈표 5〉 베트남 경제에 있어서의 국영기업(SOE)의 비중

지 표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기업체 수(개)	5861	5713	5571	5334	4981	4361
산업생산 점유율(%)	45	40	33	31	30	29
수출 점유율(석유제외,%)	62	54	48	44	39	33
은행여신 점유율(%)	52	48	45	42	39	36

자료: IDA Program Document

영기업이 시장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효율이 더욱 떨어진다.

열악한 환경상태도 경제의 효율을 저하시키고 있다.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어 지하수가 과도하게 개발되고 있으며, 수자원과 공기의 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쓰레기 처리도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자연자원의 무계획적인 개발과 비효율적인 사용은 환경상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2. 저조한 경제 개조

비록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한 경제구조 개선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속도가 매우 느리다. 일단 산업화와 현대화를 통한 경제성장정책의 방향은 올바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를 추진함에 있어 구체적인 조치가 미흡하였다. 즉, 농업 및 농촌지역의 산업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부족하였으며, 신기술 적용도 구호에 그치는 측면이 많았다. 이에 따라 경제구조는 여전히 후진적이며, 효율적 자원이용을 통한 성장의 질 제고는 실패하였다. 따라서 민영화를 촉진하고 생산 및 비즈니스에 국가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기업 우호적이고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3. 비효율적 재정 관리

국내 조달재원이 경제·사회개발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석유 등 자원개발을 통한 재정수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재정수입이 불안정하다.

비록 재정수입은 경제성장과 적극적인 정세로 완만한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나, 재정지출 또한 다양한 개혁과 개발프로젝트 추진으로 인하여 증가하고 있어 만성적인 재정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업시행에 있어서의 낭비 또한 심각한 상황이다. 많은 경우,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 미숙으로 기획 및 디자인 단계에서부터 낭비와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투자 및 건설부문에 있어 사업관련 관리, 건설, 컨설팅 및 감리 업무를 종종 경험이 부족하고 부적격한 인물들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어 불필요한 비용증대와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대폭적인 자질 향상이 필요하다.

국내여신의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국영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부실채권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처 또한 부적절한 실정이다.

4. 대외경제의 취약성

최근 베트남 수출은 연평균 16.2%씩 증가하였으나, 수입은 개발투자 증가와 산업화에 따른 자본재 및 중간재·원자재 수입 증가로 더 빠르게 증가하며 상품수지가 만성적인 적자기조를 나타내고 있다. 안정적 수출확대와 부가가치 극대화를 위하여 국제가격 변화가 심한 원자재보다는 공산품의 수출이 확대되어야 하나, 수출의 구성 또한 여전히 석유 및 농·수산물 등 저부가가치 품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제조업은 아직도 낮은 수출경쟁력으로 인하여 급격한 수출확대를 기대하기 어렵다. 2004년의 급격한 수

〈표 6〉 FDI의 베트남 경제 기여도

	1992년	1996년	2000년	2004년
GDP 기여도(%)	2.0	7.4	13.2	15.2
투자비중(%)	22.0	28.6	18.6	17.1
수출액(석유부문 제외, 백만 달러)	112	920	3,320	8,601
수출비중(석유부문제외, %)	5.3	23.4	22.2	33.1
고용규모(천 명)	-	220	379	739
재정수입 기여도(석유부문제외)	-	4.8	5.2	7.5

자료: Vo Tri Thanh.

출증가세도 국제유가 상승에 기인한 바가 크다. 수출비중의 21.4%를 차지하는 석유 외에, 2004년의 경우 섬유·의류가 전체 수출의 16.3%, 신발이 9.8%, 전자·컴퓨터가 4.1%, 수공업이 1.5%, 전선이 1% 등을 기록하였다.

2004에도 55억 달러의 상품수지 적자를 기록하였고, 경상수지 적자 또한 GDP의 2.4% 수준인 1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는 외채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04년 말 현재 외채잔액은 166억 달러로 추정된다.

만성적인 경상수지 적자 기조에서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FDI가 확대되어야 하나, 이 또한 충분하지 않다. 1987년의 외국인투자법 제정으로 FDI가 본격화된 1988년 이후 2004년 12월까지 베트남에는 총 5,110건, 금액으로는 458억 달러의 외국인 합작투자가 승인되었으며, 이중 268억 달러가 투자되었다. FDI가 가장 활발하였던 시기는 1995~1996년으로 1996년 한해 직

접투자 승인금액은 90억 달러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후 아시아 금융위기로 베트남으로의 신규투자가 크게 축소되었고, 최근 FDI가 다소 증가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20억 달러를 하회하고 있다. FDI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베트남 정부가 국내유가, 전력 및 통신비용, 해상운임 등에 대해 외국인투자자에게 차별가격을 적용하고 있어, 외국인투자자의 생산원가를 높이고 경쟁국보다 덜 매력적인 투자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 이외에도 베트남에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지분출자 방법¹²⁾, 투자재원 조달 방안¹³⁾ 등 많은 투자규제가 존재하고 있다. 또한, 베트남에는 외국인기업의 현지 기업에 대한 주식취득과 M&A를 일정 수준 규제하고 있다. 이밖에 FDI 활성화를 위해서는 합리적인 경제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법률제도의 개선, 국영기업의 개혁, 부정부패 척결, 민간 부문 개발, 사회간접자본 확충, 금융 및 대출제도 개선이 필요하다.¹⁴⁾

12) 합작기업 및 100% 단독투자법인의 법정자본금은 총투자금액의 30%이상으로 투자 시 초기 소요비용이 과다함.

13) 합작투자기업의 경우 외국인 투자지분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이는 현금출자가 원칙임.

14) 손승호,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과제",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5. 4.

5. 기타 사회불안 요소

2001~2005년간의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 대부분의 주요 사회지표는 목표대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경제개혁의 혜택이 전국적으로 계층간 균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고, 대량의 숙련노동자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의 질이 낮고, 과학 및 기술수준 향상도 늦게 진행되어 이를 통한 소득증대를 기대하고 있던 저소득층의 불만 또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의 치안 및 소요사태가 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특히 농촌 저개발에 따른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추가적인 사회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¹⁵⁾. 더욱이 홍수 등 재난지역의 재건 지연은 해당 지역 주민의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사회불안 요소로 남아 있다.

IV. 향후과제

연평균 7.2% 성장이라는 2001~2005년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아직도 낮은 국민소득과 낙후된 경제구조로 꾸준한 경제개혁을 통한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베트남 정부는 모든 자원의 효율극대화를 통하여 인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020년에는 산업국가로 진입하려는 야

심적인 목표를 갖고, 2006~2010년 경제개발계획 추진을 위한 구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베트남의 정치·사회적 안정은 큰 장점이다. 비록 일부 농촌지역에서 토지보상문제로 소요사태가 발생하곤 하나, 강력한 중앙정부 통치에 위협이 될 정도는 아니다. 또한, 세계경제, 특히 베트남의 주요 무역상대국이 향후에도 꾸준한 경제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어 베트남 수출시장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에서 ODA 및 FDI도 점차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부족한 투자재원의 보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호적인 국제시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세계시장 통합의 움직임 속에서 치열한 경쟁을 통과하여야 한다. 우선 베트남이 계획하고 있듯이 WTO에 가입하게 되면, 국제규범에 따라 베트남은 보조금 삭감 등 보다 확대된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을 피할 수 없다. 이 경우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 원칙에 기초를 둔 시장경제체제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국제무역질서의 변화 속에서 베트남 경제는 지속적인 성장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과제를 안고 있다.

우선 투자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향후 5년간 연평균 투자규모는 GDP의 37~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나, 국내재원조달 규모는 25~6%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15) 농촌지역에서 간헐적으로 소요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지난 1월에도 500명 정도의 농촌 주민들이 정부 청사를 점령하고 방화. 이번 소요는 농촌에서의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낮은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불만이 표출된 것으로, 이들은 보통 1m²당 약 1달러 정도의 보상을 받고 있으며, 이는 시장가격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임.

따라 부족한 재원은 ODA와 해외투자 또는 해외 차입으로 충당되어야 한다.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FDI이다. 따라서 베트남은 더 많은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법제도개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원활한 국내재원 조달을 위하여 채권시장을 더욱 육성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을 개발하여야 한다. 한편, 효율적인 재정관리를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자질도 개선하여야 한다.

둘째, 베트남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여야 한다. 비록 최근 베트남에서 많은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 항만, 전력 등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아직 매우 열악하다. 지역간 통합 및 물류비용 최소화를 위하여 양질의 교통망 구축이 필수적이다. 베트남은 우선 2010년까지 모든 국도의 포장을 완료할 계획이나, 점진적으로는 모든 국도의 규격 표준화와 도로개량이 필요하다. 또한, 국제공항 설비의 현대화와 함께, 교량 개량 등 농촌지역의 도로망 확대가 필요하며, 베트남의 주요 항만들이 동남아와 동북아를 향한 화물의 중간기착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항만시설의 확대와 현대화도 필요하다. 이는 증가하고 있는 베트남의 무역 확대를 위하여도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대형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충분한 수심의 항구 건설도 필요하다.

베트남 북부와 남부의 삼각주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강과 운하 또한 다양한 수상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수상교통

의 효율 개선을 위하여 운항 및 안전체계를 현대화 하여 24시간 운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베트남에는 2001년 말 현재 광역지역(district)의 98%와 기초지역(commune)의 85% 등 전국적인 전력망이 형성되어 있으나 노후 송배전 설비로 인하여 전력의 질이 낮고 손실도 많아 정전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의 산업화 진전에 따라 보다 다양한 전력원의 확보가 필요하며, 손실률 감소¹⁶⁾ 및 전력공급 관리개선을 통한 전력산업의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

베트남은 지식경제 및 IT산업 성장의 기본이 되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확충하여야 한다. 베트남은 정보화에 필요한 정보통신망, 인터넷 이용, PC 보급률 등이 모두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 DAI(Digital Access Index)지수는 2003년 말 현재 178개 조사대상국 중 122위로 나타났다. 2003년 12월 현재 인구 100명 당 유선전화 회선 수는 6.3라인,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43만 명에 불과하며, 인터넷 이용자 또한 전체 인구의 4.3%에 불과 하였다. 미미한 IT인프라로 인하여, 2003년 현재 아·태지역 및 세계 IT시장에서 베트남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3%, 0.1% 정도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베트남의 IT현황을 고려할 때, 베트남 경제의 선진화를 위한 IT인프라 구축은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¹⁷⁾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최근 이동통신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통신인프라 확충은 고무적이다. 이에 따라 2005년 초 이동

16) 제8차 개발계획기간 중 손실률 목표는 8%.

17)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베트남 정보통신현황", 2004. 9.

통신 가입자 수는 5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¹⁸⁾

셋째, 인적자원 개발과 과학기술능력 제고를 통하여 경제 사회분야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베트남은 여전히 기술수준이 낮고 정부 각 부문에서도 전문지식을 보유한 행정관료가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외국으로부터의 기술이전도 예상보다 늦게 진행되어 자원의 낭비가 심하여 각 부문의 효율이 매우 낮다.

이러한 상황에서 베트남은 과학자 및 하이테크 전문가 양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전문관리자 및 기술자를 육성하여야 한다. 특히 농촌지역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촌지역에서의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기술수준 향상의 중심은 교육이다. 따라서 교육의 양과 질을 제고하기 위한 예산의 확충이 필요하며, 과학과 기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높여야 한다. 또한, 새로운 과학 기술의 진보가 발생하면, 이에 수요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농촌이나 오지 등 고등교육이나 직업교육의 수혜가 어려운 지역에는 통신 교육 등을 활성화 하여, 교육의 결과가 소득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끝으로 WTO를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질서 하에서 시장경제로의 전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베트남은 여전히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베트남에는 외국기업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며, 시장경제 메카니즘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제반 인프라가

미비한 실정이다. 우선 국제규범과 부합하는 법제도의 정비와 집행의 투명성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법 앞에서는 모든 시장참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공정한 시장환경 조성의 장애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러한 장애요인으로는 구체제에 익숙한 관행들로 관료들의 무능과 태만, 해외투자기업에 대한 차별 등을 들 수 있고, 미숙한 자본시장 또한 원활한 자금조달 및 흐름을 어렵게 하여 경제의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

아직도 베트남 경제는 개혁을 추진 중이다. 베트남 정부는 사회주의에 입각한 시장경제체제 수립이라는 정부의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경제를 이끌어 가는 행정체제 및 수단을 혁신할 필요가 있다.

V. 맺음말

1986년도에 시작된 베트남의 경제개혁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지난 7차례의 경제개발계획 추진 기간동안 베트남은, 1994년의 미국의 대 베트남 경제제재 해제 이후 1995년의 ASEAN가입과 2001년의 미국과의 무역협정체결을 계기로 대규모의 FDI가 유입되었고, 비록 1990년대 후반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었지만 최근에는 평균 7%대의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였고, 많은 사회

18) EIU, Country Report, Vietnam, 2005. 4.


여건 또한 개선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은 여전히 경제·사회 인프라가 취약하고, 산업구조도 저부가가치 생산 중심의, 1인당 국민소득이 500달러를 조금 넘는 빈곤국이다.

과거의 대 베트남 FDI는 베트남의 풍부한 자원 개발을 목적과 수입대체를 위한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이러한 합작기업들은 베트남 정부의 이중가격제 등 다양한 차별정책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베트남 정부는 세계시장과의 통합을 목적으로 WTO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러한 차별들이 제거되고 있다. 또한, 국제규범에 따라 높은 보호무역관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보호무역하의 내수기업들도 수출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향후에는 베트남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이용한 수출목적의 해외투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베트남 진출에 있어 유망업종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아직까지도 베트남의 주요 수출품목은 석유와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이고, 섬유·의류 및 신발, 그리고 컴퓨터와 전자제품의 비중이 조금 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베트남의 전반적인 인프라, 특히 정보통신 인프라가 취약하고, 기술수

준 및 숙련노동자 비율이 낮은 것에 유의하여야 하며, 불투명한 행정처리도 감안하여야 한다. 더욱이 주요 경쟁국인 중국의 경제상황은 베트남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중국을 고려하지 않은 해외투자결정은 불가능하다.

베트남 정부의 인프라개선 투자는 대규모로 계속될 것이며, 이를 위한 원조공여국의 관심도 높다. 이러한 인프라 개선사업에 한국의 ODA를 활용하여 한국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의 열악한 정보통신 인프라부문에도 향후 많은 투자가 예상된다. 이 분야는 IT 선진국으로서 한국의 참여가능성이 가장 높은 분야이기도 하다. 베트남 정부는 교육 및 훈련을 통한 기술인력 육성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IT 교육관련 사업도 유망하다 하겠다.

베트남은 WTO가입을 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다. WTO의 가입은 베트남의 일련의 개방정책을 마무리하는 작업이다. WTO의 가입에 따라 베트남의 수입시장 확대 뿐 아니라, 수출산업 또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출목적의 해외투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베트남의 여러 문제점을 충분히 파악하고 준비하여 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1. 손승호, “베트남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와 향후 과제”, 수은해외경제, 수출입은행, 2005. 4
2.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베트남 정보통신현황”, 2004. 9
3.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DSI), “*The Strategic Orient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in Vietnam*”, mimeograph, 2005. 5
4. EIU, *Country Report*, Vietnam, 각호
5. General Statistics Office, *Statistical Handbook*, 2004
6. IDA, *Program Document for a Proposed Credit in the Amount of SDR 69.0 million to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for a Third Poverty Reduction Support Operation*, Rep. No. 28916-VN, 2004. 5
7. Vietnam Institute of Economics, “Implementation of Socio-Economic Objectives During the Period 2001-2005 and Prerequisites for the New Period 2006-2010”, *Vietnam’s Socio-Economic Development, A Social Science Review*, No. 40, Winter 2004
8. Vo Tri Thanh, “FDI in Vietnam: Facts and Policy Issues”, mimeograph, 2005. 5
9. <http://www.dsi.org.vn>, (Development Strategy Institute, MPI, Vietnam)
10. <http://www.eiu.com>
11. <http://www.mpi.gov.vn>, (Ministry of Planning and Investment, Vietnam)